

北韓의 大學入試制와 教育 경쟁

李 鍾 珽
(江原大 教育學科)

일반적으로 사회의 地位分配 구조는 教育競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國家 또는 黨에 의해 社會的 地位가 분배되는 社會主義 國家에서 教育의 지위 분배 기능이 어떠한고, 또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教育競爭에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흥미있는 물음이다. 그중에서도 이 글은 북한 의 大學入試制 분석을 통해 教育競爭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1. 緒：北韓의 高等教育

1) 高等教育의 國家的 目的

북한의 문화 혁명 수행에 있어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교육 사업이며 이는 민족 간부 육성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전 사회의 인텔리화 실현을 위해 사회 구성원을 로동 계급화하고 그들을 대학 졸업 정도의 문화·기술 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달한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만드는 것에 대학교육의 목적을 두며, 이러한 목적 하에 대학교육 정책이 결정되고 제도가 수립된다. ‘로동 계급의 인텔리 대군’, ‘민족 간부의 대부대’ 양성은 기술 혁명, ‘주체화·현대화·과학화’된 경제 수요에 의한 분배 실현을 통해 공산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길이라는 목표 하에 해방 후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 체계의 수립과 확대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일하며 배우는 교육 체계 확립

에 힘을 기울여 왔다. “사람들을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키우는 데서 기본은 학교 교육이며, 특히 고등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논다(정성진, 1984 : 13).”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경제·문화의 각 방면에 유능한 민족 간부가 없이는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건설의 각 분야에 필요한 민족 간부를 대량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김일성 저작선집 4 권 : 440~441).”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대학을 주체형의 기술자 전문가를 육성하는 주요 혁명 간부 양성 기관으로 보고 있다.

2) 北韓 高等教育制度의 概要

북한의 교육 제도는 몇 차례의 개편을 통해 오늘날 일반 학교 교육 체계, 성인 교육 체계, 특수 교육 체계로 구성된 3면적 교육 체계를 갖고

있다. 취학전 교육과 초등교육을 義務教育(11년간)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은 북한 교육의 한 가지 큰 특징이다. 또한 중등 전기 교육과 중등 후기 교육을 결합시켜(남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되어 있음) 선반 단계를 최소화시키고 있다. 單線型 교육 제도이지만, 부분적으로 複線制를 채택하고 있다. 만경대 혁명 유자녀 학원, 예·체능계 학교가 대표적이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및 사회주의 경제 건설 정책과 궤를 같이 하여 북한 전역에 각급 학교에 대한 지역적인 안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북한의 중앙급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는 거의 평양에 집중되어 있다. 또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4년제 단과대학은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대중적인 로동 계급화 교육의 기초 위에 북한 특유의 성분 분류에 따른 특수주의적 엘리트 교육이 자리잡고 있다.

북한에서 고등교육 大衆化 政策의 목적은 노동 현장에서 生産技術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고등교육 기관은 남한과 같이 畚日制 正規大學 중심이 아니다. 북한의 대학은 성인 교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생산 기술 실습 및 인수 과정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대학교육과 生産勞動現場을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북한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工場大學은 성인 교육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이다. 북한이 공장과 작업장에 학습 체계를 조적하고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대학교육을 보급시킨 것은 1950년 봄에 설립한 '勞働者學校'에서 비롯된다. 북한에서는 11년 간의 의무 교육을 마친 사람이 다니게 되는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모든 형태의 학습 기관과 조직을 고등교육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 기관들은 우선 學業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 체계와 일하며 배우는 교육 체계로 분류된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 체계는 대학(교) 4~6년, 교원대학 3년, 고등전문학교 3년, 남한 대학원의 석사 과정에 해당하는 연구원 3년, 박사 과정에 해당하는 박사원 2년이 있다. 교원대학은 인민학교 교사를 양성하며, 고등중

학교의 중등반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은 제2사범대학, 고등반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은 제1사범대학이라 한다. 교원대학은 각 도에 2개교씩 있다.

북한에는 종합대학이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과대학 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단과대학 형태이다. 실제에 있어서 단과대학은 남한의 종합대학과 비교하면 한 전공 학과 또는 3~4개의 인접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組織으로 보아 북한 고등교육의 목적이 전문적인 현장 기술자 또는 직능인의 양성에 주 목적이 있다고 본다. 또한 특이한 것은 김일성종합대학은 정규 教育行政 체계에서 벗어나 政務院 직속으로 되어 있고 修學期間도 다른 대학보다 1~2년 길다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 대학의 관리 운영, 교수 내용과 방법, 학생 활동 등은 다른 대학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현재 정무원 내 부장급 이상 간부의 1/2, 부부장급 이상의 약 1/3이 등 대학 출신이다.

북한에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고등교육 기관은 고등전문학교이다. 고등전문학교는 3년제 직업 전문 학교로서 각 산업 분야에 필요한 숙련 공이나 기능공의 대부분을 양성하는데 이는 크게 2종류로 대별된다. 하나는 북한 전역에 공통되는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서 건설전문학교, 예술전문학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산고등광업전문학교, 제2고등도자기전문학교 등이 이에 속하며, 이러한 유형의 고등전문학교는 郡 단위로 설치되어 있다. 高等專門學校 수는 1989년 현재 576개이다.

일하면서 배우는 '職場 附設' 고등교육 체계는 공장대학(1951년 군자공업대학과 전천공업대학이 최초), 농장대학(1981년 청산농업대학이 최초), 어장대학, 텔레비전방송대학(1982년 시작), 통신교육, 야간교육, 현지 학습반, 기술자 전문가 자격 시험 제도 등이 연계되어 있다. 공장대학은 공업 지대, 농업 지대, 수산 지대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대학을 육성하고 운영은 공장의 자기 자본으로 직영하므로 대부분 공장 간부들이 교원이 되고 공장 자체가 실업장, 실습소가

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는 생산 현장에서 부설되어 현장에서 필요한 技術·職能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 기간은 5~6 년으로 2부제로 운영되는데 공장과 기업소 근로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기관의 성격이 강하다.

그외에 고등교육 기관 수준의 정치 간부 교육 기관이 있다. 예를 들면 사로청대학(3년과정), 사회안전부정치대학, 김일성고급당학교, 중앙보건간부학교, 중앙교육간부정치학교 등이다. 북한의 간부 학교는 학습 교양을 통해 엘리트 층원의 역할을 한다. 사로청대학은 수학 연한이 3년이며 사로청 간부 양성 및 재교육이 목적이다. 사회안전부정치대학은 수학 연한이 3년으로 파장급과 지도원급의 재교육을 담당한다.

3) 高等教育의 量的 成長

북한의 교육학자 리영복에 의하면, 사회주의 기초 건설이 끝나고 社會主義 工業化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던 7개년 계획 시기(1978~1984)에 북한의 지방 경제는 그 규모가 확대되고 내용이 더욱 다양해졌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地域의 特性과 需要에 맞게 간부들을 키우는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모든 지방에 종합적인 幹部養成基地를 튼튼히 꾸리도록 하였으며, 각 도마다 그 지방의 정치·경제·문화 발전에 필요한 기술자와 전문가를 길러내는 간부 양성 기관들을 꾸렸다.

북한은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자와 전문가 양성 사업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구호 아래 고등교육 기관을 대거 신설함으로써 '80년대에는 대중적 고등교육 체제로 움직이면서 괄목할 만한 量的 成長을 이루었다. 고등교육 기관의 종류는 종합대학 2개¹⁾, 단과대학, 고등전문학교, 특수대학 등으로 구분되며, 양적으로 보면 고등전문학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례로 1984년 한 해 동안에만 24개의 단과대학과 6개의 공장대학을 신설하였다.

1985년에는 '18개의 대학, 46개의 전문학교, 12개의 제1고등중학교를 개교'하였다. 북한의 고등교육 기관 수는 1980년 170개이던 것이 1989년에는 270개로 늘어 매년 평균 10개 대학이 신설되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고등전문학교도 1980년 516개이던 것이 1989년에는 600여개로 매년 8~9개가 신설되었다. 대학과 고등전문학교 학생 수도 49만 4천 여명이다. 또 1977년 이후 10년간 '30여만 명의 기술자와 전문가가 양성됨으로써 무려 130여만 명의 인텔리 부대가 마련'되었다. 1980년대의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지금보다 더 많은 科學技術人力의 확보가 절박한 데서 나온 교육 정책의 전환에 따른 고등교육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북한 고등교육의 목적·제도·양적 성장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전반적 상황에서 북한의 대학 입시 제도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북한에서도 大學入試 경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입시 경쟁은 4년제 정규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이지 일하며 배우는 교육 체계에 대한 경쟁은 아니다. 이 글에서 논의하는 북한의 대학 입시 제도는 4년제 대학의 입시 제도이다.

2. 高等中學校 卒業과 進路 配置

북한 사회는 國家計劃社會이기 때문에 고등중학교 졸업 후의 進路決定도 개인의 선택보다는 국가에 의한 배치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누가 대학을 가고, 누가 직장과 군대로 가는가? 직장이나 군대로 간 사람들에게 다시 대학에 갈 기회가 주어지는가?

학생들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10학년년에 해당, 남한의 고 1 수료에 해당됨—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소수 학생(북한에서는 이 학생들을 直通生이라고 부른다)과 다수의 직장 배치 신청 학생으로 분류된다. 진로 지도는 進學指導

1) 당명 유학생의 증언에 의하면, 중전의 김책공과대학도 종합대학이었다(조선일보, 1990.1.26일자). 1988년 조선중앙년감(p.197)에도 '김책공업종합대학'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학생 8천 여 명, 교수 5백 명 규모의 대학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김일성종합대학 하나만이 종합대학이라는 설은 수정되어야 한다.

와 職場 配置 및 軍入隊로 대별된다. 고등 중학 졸업생의 70%가 군에 입대하고 5~10%는 대학에 진학하며 20~25%는 직장에 배치된다.

북한에도 남한의 소위 일류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1987년 조선중앙년감에 의하면 1986년에 “평양 제1 고등중학교를 비롯한 각 도의 제1 고등중학교들에서 졸업식이 진행되었으며 졸업생 전원이 우수한 성격으로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각 도마다 하나씩 설립되어 있는 제1 고등중학교의 입학 요건이 무엇인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평양시의 용복여자고등학교의 경우 45% 정도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한다.

직장 배치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는 ‘국가계획’에 의거한 人力需給 계획에 따라 직장 배치를 위한 진로 지도를 한다. 이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勞動黨에 대한 정치적 신임도이다. 동구 유학중에 귀순한 대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진로 지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지방 소재 고등중학교의 졸업반 담임과 정치부 교장(각급 학교 내의 당적 통제 기구로 설치된 초급당 위원회의 장, 형식상 학교장 밑에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 행사)은 성분 분류에 따라 졸업생의 진로 지도를 한다. 진로 지도는 상급 학교 진학, 군 입대, 직장 배치 등으로 대별된다. 협동농장과 공장 노동자가 주류를 이루는 직장으로서의 배치가 있어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선택이란 생각하기 힘들다. 직장 배치가 결정된 졸업생들에게는 시·군 인민위원회로부터 취업에 필요한 서류가 배부된다. 이력서, 신원진술서, 취직희망서,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는 본인이 작성하고 취업 대상자에 대한 평정서는 학교장이 쓰게 된다. 정치부 교장은 이 서류들을 심사하여 직장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 배치가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 못되며 획일적 배치이기 십상이다.

이처럼 行政當局에 의한 劃一的集團 配置를 북한 사회에서는 ‘무리배치’라고 부른다. 당국에 의해 한번 배정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의 진출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 망명 귀순자들의 증언이다. 세대 군인의 직장 배치 과정에서도 자율적인 선택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 세대

명령서를 받게 되면 출신 지역인 도·시·군 군사 동원부까지 단체로 이동한다. 군사동원부에서는 이들을 人民委員會 勞動課에 인계하고, 이들의 성분과 군 근무 기록을 참조하여 당 지도원, 사무원, 산업체 필수 요원, 간부 양성 요원 순으로 필요한 인원을 뽑아내고 나머지는 대부분 집단적 무리 배치의 과정을 밟게 된다.

이와 같이 고등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평균 5~10%가 대학에 진학하고, 고등중학교의 종류에 따라 전원이 대학에 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45% 정도가 진학하는 학교도 있으며, 따라서 거의 대학에 진학시키지 못하는 학교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90~95%의 고등중학교 졸업자는 군과 직장으로 ‘무리배치’된다.

3. 北韓의 大學入試制度和 實際

1) 入學資格制度

북한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 원리에 따라 黨性(주로 노동계급성)의 원리와 교육과 생산 노동을 결합시키는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학 입시 제도에도 이 원리들이 반영되어 있다. 6·25 이전에는 대학 입학 기준이 學歷 위주였으나, 그 후에는 학업 성적을 불문하고 국가 힘등 조합이나 기간 산업에서 2년 이상 또는 군 복무를 3년 이상 하지 않으면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다. 노동신문에 보도된 1961학년도의 상세한 지원 자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급중학교·전문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유한 자로서 人民經濟 各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는 현직 일꾼, ② 1960년도 고급중학교·전문학교·노동학원·유자녀학원 졸업 예정자로서 학습과 社會事業에서 우수한 자, ③ 고급중학교 또는 전문학교 중퇴자로서 祖國保衛 또는 經濟建設事業에서 다년간 단련되었고 고급중학교 및 전문학교에 부설된 단기 강습반에 당라되어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大學入學 應試資格을 받은 자, ④ 대학 또는 기술전문학교에 부설된 초급중학교 및 기술학교 교원 양성반 졸업자, ⑤ 기사급 검정시험에 3과목 이상 합격한 자 등이다.

1966년 이후 이러한 규정은 없어졌으나, 고

등중학교 및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에서(대체로 4~8년간) 신임을 받은 자와 제대 군인들에게 우선권을 인정하여 신입생의 70%는 군 제대자, 20%는 직장 근무자, 10%가 고등중학교를 당해 연도에 졸업한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9년까지는 推薦制를 통해 黨幹部 자녀 등 출신 성분 위주로 대학 진학자를 선별 입학시켰으나,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우선 우수한 학생의 탈락으로 高級 人的 資源의 배출이 어려워지고, 둘째로 偏頗的인 選拔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1980년부터는 매년 3월 정부원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당해 연도 졸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國家資格考査'를 실시, 시험 성적에 의해 1차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進學의 機會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격고사가 생긴 후에도 추천제는 계속 존속해 오고 있어 당성이나 사회적 배경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대학 입학의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編入學制度는 있기는 하지만,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北韓의 대학 입학 자격에 관한 총괄 규정에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의 소지자는 黨의 유일 사상 체계가 확고하고 階級的 覺醒이 높으며 黨과 革命을 위하여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입학 시험 성적은 필기 시험, 사회적 성분, 정치 조직 생활 등 3개 분야가 각각 1/3씩 동일한 배점으로 종합 평가 되고 있다.

대학 입학 과정의 실체는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뉘고 있다. 첫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사로청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당 핵심 간부의 자제들이 대부분이다. 둘째, 이미 졸업한 사람으로 수년간(규정상 1년 이상 취업, 실제로는 3~4년 취업) 군대나 직장에 근무하면서 직장사로청연맹 등 각자 배치된 人民經濟部門에서 모범적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장 기업소 책임 비서에게 思想的 熱性者로 평가

되어 공동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입학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따라서 같은 학급이라도 16~17세부터 24~25세까지의 청년층이 공존하는 대학 학급이 된다. 또한 북한 대학생은 일본 언론의 논평처럼 '半軍半學'의 입장에 있다.²⁾

1980년의 이러한 입시 제도의 개편 때문인지 종래에 알려졌던 바와는 달리 망명 대학생들은 대학생의 구성비가 당해 연도 고졸생(직통생)이 60~70%, 제대 군인이 30~40%로 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 제도에도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우선 능력 위주 선발(厚)과 당성 위주 선발(紅) 간의 딜레마를 여전히 안고 있으며, 나아가 平等 지향의 이념을 내걸고 敵對階層 出身이라 하여 어느 세대까지 대학 입학에 차별을 둘 것인가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잠시 논의가 빚나가지만, 이런 입시 제도와 북한 대학 분위기와 상관 관계를 살펴 보자. 1989년에 東歐圈 국가에 유학중 남한에 귀순한 6명의 대학생들은 북한 대학 내에서 젊은 학생들 간에 정부를 비판하는 소리가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북쪽 대학들은 거의 예외없이 直通生(고등중학교를 마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60~70%, 제대 군인이 30~40%로 구성되어 있는데 군 복무를 마치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간부직을 맡아 학교를 꼭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기숙사 방 하나에 8명의 학생이 함께 기거하며 이중에는 2~3명의 제대 군인이 꼭 섞여 있습니다. 군에서 10년 가까이 복무하며 소대장, 당 세포 비서들을 거친 사람들이기에 '사상'이 투철할 뿐만 아니라 사로청이나 교도대 조직에서 두각을 나타내 충성도 높을 인정받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나이 어린 직통생들이 만 인동을 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김정일이 언젠가 대학 생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제대 군인들 비율을 70~80%까지 높이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만, 대학을 장악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써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1989년 남·북 학생회담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을 때 일본의 한 언론은 "남과 북은 학생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南韓 학생들이 순수한 학문적 태두리 속에 있다면 北韓 학생은 半軍半學의 입장에 있다"는 보도를 하였다.

이뿐 아니라 북한 대학에서는 입학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 수학 과정, 졸업 후 진로 배치 과정에서도 黨性을 일면 강화하고 일면 통제하고 있다. 몇 가지 특징적인 예를 들어보자. 북한 대학에서는 교수에게 강의안 사전허가제, 수업의 사후검사제, 사상 연수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에게는 勞務靑의 활동 평가가 입학이나 졸업 후 직장 배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학 행정에 있어서도 學校黨委員會는 당의 외곽 단체인 사로칭, 직업총동맹, 여성동맹 등의 조직을 통하여 2중, 3중으로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科學技術人力의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학 자격으로 무엇보다도 黨性, 共產主義 思想을 중요시하고 있다. 1980년 6차 당 대회에서 간부들의 첫째가는 표준은 당에 대한 충실성이고, 간부 대열 구성에서도 노동자 계급 출신의 지휘 성원을 계속 높이면서 '당에 대한 충실성'과 '노동계급 출신'을 고집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엘리트의 속성은 다분히 紅(redness, 당성)과 專(expert, 기술)을 겸비한 이중적 종합 엘리트가 지배적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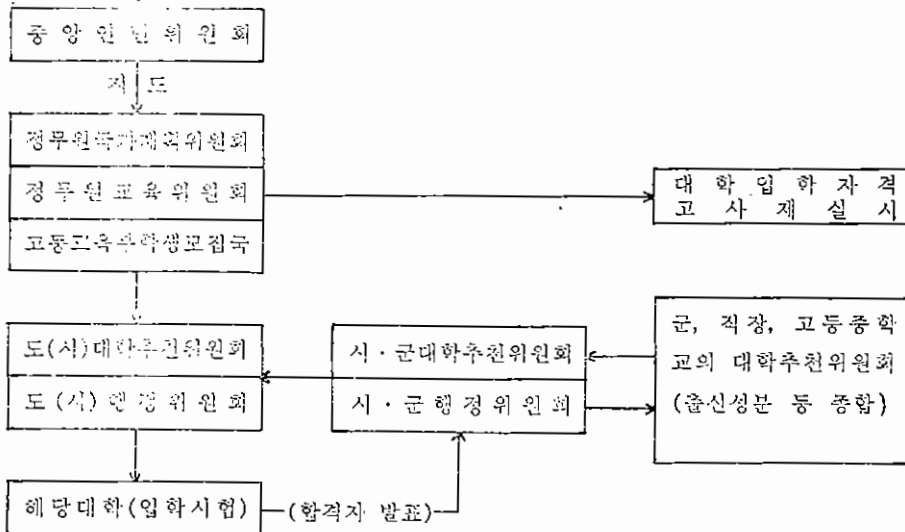
다시 북한 입시 제도의 특성으로 돌아가 보자. 북한에서는 대학 입시에 있어서 지역별 안배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지역별 안배

가 고려되는 입학 소요 인원은 대학 입학 관계 업무를 관장하는 정무원 교육위원회가 매년 할당한다." 또한 송도정치대학의 경우는 1960년 대까지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남한 출신자를 입학시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입 자격 제도에는 입학 연령 제한 규정이 있다. 북한 대학은 전문 분야에 따라서 최저·최고 연령을 규정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평양음악대학 성악과 지원자는 최저 19세, 현대음악·국악은 17세 미만, 평양체육대학과 평양예술대학은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김일성대학은 45세 미만이면 입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외국어대학, 체육대학, 예술 부문 대학, 그리고 물리학·수학·전자공학을 비롯한 科學技術者 養成을 위한 특정 학과의 경우는 반대로 당해 연도 고등중학교 졸업자만이 진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大學入學 志願節次

대학 입학 지원자는 軍·직장 또는 고등중학교의 대학추천위원회나 사로칭의 추천을 받아 시·군 대학 모집위원회에 지원 서류(입학 원서, 사진 2장, 이력서, 자서전, 가계표, 졸업증명서, 성적 증명서, 추천서 등)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개인별 서류를 검토, 응시 학교를 확정하여 해당 대학에 통고하면 수험표가 교부된다. "한편

〈표 1〉 대학 입학 추천 및 선발 과정



* 자료: 「북한총람」, 1983, p.1280.

군 복무를 마치는 제대자들에 대해서는 사단이 주도하여 핵심 당원 몇 명을 골라 대학에 추천·입학시키고 나머지는 출신 지역 군사동원부에 이첩한다. 제대 군인 중 대학 입학의 특전을 받는 젊은이는 1개 사단에 10명 내외이다.” 각 대학 경쟁률이 높은 만큼 지원자는 희망 응시 대학을 5개까지 순서대로 기입하게 되어 있다.

3) 試驗科目과 入試競爭

시험 과목은 노동당정책사·체육·외국어·물리·수학이 공통 과목이다. 여기에 社會科學 분야는 조선어(국어)와 기타 선택 과목, 自然科學 분야는 화학과 기타 선택 과목이 포함된다. 이러한 시험 과목은 남한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북한에서도 대학 입시 경쟁률은 어느 資本主義 社會 못지 않다. 김일성대학의 경우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고, 가장 경쟁률이 높은 예술대학은 평균 18대 1을 넘어 藝術人에 대한 예우를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보도는 일본으로부터 나온 최근 소식과 일관성이 있다.

평양 축전 직후 일본의 한 기자가 평양에 있는 여러 학교를 방문한 뒤에 쓴 기사에서 북한 입시 경쟁의 일단을 살펴 볼 수 있다(동북아정보, 1989: 5~6). 일본으로부터 나온 이 기사에 의하면, 북한에서의 대학 입시 경쟁은 남한보다 더 심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런 경쟁이 남한처럼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평양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이 기사를 통해서 분간할 수 없지만, 이 기사는 제목을 “대학 입시는 ‘생과 死’에 영향을 미치는 일생을 좌우하는 대문제”로 뽑고 있다.

“북한의 대학 입시는 한국과 달리 6월과 7월에 실시된다. 평양시 용흥동에 있는 용북여자고등학교에 방문해 보았을 때, 김동주교장(54)이 말한 북한의 입시 경쟁은 실로 韓國보다도 더욱 심각한 ‘생과 死’에 관한 문제였다. …중략…전교 학생 1,000명 중에서 45%만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말한 김교장은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수험생은 바로 공장으로 간다”고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물론 다시 시험을 볼 기회는 있지만 공장 생활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재수생’

이라는 표현은 부적합하다. 그리니까(따라서 수험하는 학생들은 화이트칼라의 직장인(비육체노동)이 되느냐, 아니면 일생 유체 노동자로 남아 있을 것인가의 인생 행로가 갈라지는 길인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職場配置制이기 때문에 남한과 같은 재수생 문제는 없다. 반면에 학생들은 사실상 대학 진학의 기회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구 유학생 귀순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출세 코스는 ‘김일성대학 졸업’—‘모스크바대 유학’이며, 그들은 이를 ‘백두산 즐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 사회에서도 체제 내에서 교육을 통한 지위 상승 제도가 있으며, 교육의 수혜자(학생들)는 이 제도에 진입하기 위한 교육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나 당이 정한 대학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든 대학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개인적 목적은 대학을 체제 내 지위 상승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의 대학 입시 제도와 실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다.

- ① 고등교육의 국가적 목적은 주체형 전문 기술을 갖춘 革命幹部 양성이다.
- ② 思想性和 黨性을 강조하고 있다.
- ③ 敎育과 生産勞動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학생은 直通生과 직장 출신 또는 군 계대자를 비율제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앞의 네 가지 특징은 高級 技術人力 개발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국가가 인식하는 문제점).
- ⑥ 당성·출신 성분의 비중이 높은 것에 따른 敎育의 不平等에 대한 불만이 '80년 입시 제도 개혁 후에도 남아 있다(주민이 인식하는 문제점).
- ⑦ 학생들에 대한 지역별 안배가 고려되고 있다.
- ⑧ 입학 연령 제한 규정이 있다.
- ⑨ 입학 지원 절차에 있어서 고등중학교, 군 부대장, 직장의 대학추천위원회의 추천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㉞ 시험 과목은 남한과 매우 다르다. 일례로 노동정책사·체육·물리가 공통 과목이며 국어는 사회계 필수 선택 과목이다.

㉟ 북한에서도 일부 정규 대학의 입시 경쟁은 극심하며, 출세 코스가 있다. 그러나 대입 탈락자에 대한 ‘무리배치’ 제도 때문에 재수생은 없다.

㊱ 북한에서도 대학 입학의 개인적 목적은(체제 내) 地位上昇의 추구이다.

4. 社會主義的 教育競爭에 관한 論議

한 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와 실제에는 그 나라의 教育競爭 상황이 극명하게 잘 나타나 있다. 비록 제한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지만, 북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教育競爭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地位分配 구조는 교육 경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업을 개인이 선택한다는 점에서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가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학교 졸업 후 국가에 의해 직장이 배치된다는 점에서 地位의 分配는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가 높다. 이와 같이 국가 또는 당에 의한 지위 분배 체제 하에서 교육의 지위 분배 기능과 교육 경쟁은 어떠한가에 관한 질문은 흥미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그 사회의 개인들은 선택되어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이 국가에 의해 자기가 원하는 지위와 직장에 배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이 고용주에 의해 자기가 원하는 지위와 직장에 고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하는 데 양 체제 모두에서 教育이 갖는 決定權은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양 체제 모두에서 교육 경쟁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 경쟁의 속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나마 서론적인 논의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련 학자들에 의하면, 소련 사회주의 국가에

서의 교육 경쟁은 자본주의의 그것과 다르다고 한다. 소련 학자 필리포프(F.R. Fillippov)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도, 사회주의 하에서도 학교나 교사가 받은 사회적 기능은 외면적으로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기능의 근본적인 차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본주의와는 반대로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학교는 교육·문화의 차이에 기초한 社會階級의 격차를 서서히 개선한다고 하는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학교를 졸업한 청년에게 높은 수준의 社會移動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Dobson, 최희선 역, 1984 : 277 제인용).”

소련의 연구자들도 현행 입시 제도 하에서는 상류 계층 가정 출신자에게 유리한 ‘偏重’ 현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비에트의 고등교육 제도는 質, 위신 및 그에 소속된 학생 집단의 사회적 출신 등에 따라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전형적으로 어떤 특정 직업에 대응하는 전문적 훈련을 실시하는 고등교육 기관의 위신은 그 직업의 위신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또한 고등교육 기관의 위신이 높을수록 그 곳의 학생 가운데 비육체적 직업(특히, 인텔리겐차)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진다(Dobson, 최희선 역, 1984 : 297).” 이와 같은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연구자들은 소련 고등교육 기관의 경쟁적 선발은 ‘사회주의적 경쟁의 하나인 특수한 형태’로서 서방 제국에 있어서의 선발 과정과 공통된 부분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미에서의 고등교육 기관에의 입학 경쟁은 자본주의 제국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모든 것이 학습을 위하여 소모되는 경제적 능력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며, ... 知識의 경쟁은 經濟力의 경쟁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Dobson, 최희선 역, 1984 : 290~291).”

북한의 교육 경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북한도 국가 계획 사회이기 때문에 졸업 후 지위 분배가 개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국가의 배치에 의해 결정되는 면이 강하다. 대학도

중앙급 인재 양성 대학과 지방급 인재 양성 대학으로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 고등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은 1980년부터 정부의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대입자격고사’를 치르지만 고사 성적만으로 선발하지는 않는다. 즉, 대학 입학에 추천을 받은 자들은 대개 출신 성분 성적 1/3+본고사 성적 1/3+정치 조직 생활 평점 1/3 정도로 전형되어 입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 배치 과정에서의 선발 기준은 성분과 당성을 가장 중요시하며, 다음으로는 교내 단체 생활의 개인 평점과 학업 성적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출신 성분이 좋은 것을 전제로 하여 대입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개방적 경쟁이 아니라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 간의 제한된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교육 제도에서 최초의 선발 시기는 16세(고등중학교 졸업시)로 만기 선발 제도를 가졌다. 그러나 북한은 의무 교육 단계에서 이미 특수 계층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예·체능 계열의 특수 학교와 혁명 유자녀 학원의 특수 학교). 이와 같이 부분적인 복선형제를 전제로 한 단선제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특정 계급 집단에 유리한 교육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교육은 특수층을 위한 엘리트主義와 대다수 인민을 위한 平等主義가 공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엘리트주의는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신분과 계급과 주거 지역에 제한된 엘리트주의이다.

북한이 자랑하고 있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제’는 노동 생산성 향상과 정치적 통합성 유지에 목표를 둔 것이며 입학 경쟁은 없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학교를 졸업하여도 개인의 지위 향상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정규 4년제 대학에 대한 극심한 입학 경쟁과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 1989년 일본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고등중학생들은 생과 死를 가르는 入試競爭을 치르고 있으며 북한의 입시 경쟁은 남한보다 심한

데, 그 주된 이유는 정규 대학 입학 여부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를 일생 동안 갈라 놓는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에서의 입시 경쟁의 주된 이유도 개인의 地位向上에 대학교육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소련과 북한의 教育競爭에 관하여 제한된 자료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았다. 비록 간단한 고찰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주장은 타당할 것이다.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學歷의 地位分配 機能은 비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당과 국가에서 학력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제도적 장치와 선발 과정을 강화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학력과 학벌이 당성과 출신 성분 및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 주고 있다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學歷主義의 경향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教育競爭도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심할 것이라 사료된다. *

〈參考文獻〉

-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4권.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1984년 7월 22일.
 리영복,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북한연구소, 「북한총람」(서울: 북한연구소, 1983).
 이종각, 「북한의 교육정책과 행정 및 고등교육」, 황정규 외, 「북한교육의 조명」(서울: 법문사, 1990), pp.204~337.
 ———, “교육경쟁양식과 교육경쟁구조: 1차 논의”, 「교육사회학연구」, 제 1권 1호, pp.7~18.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0~1989.
 정성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인테리 대군의 양성」(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정연수, “김일성 종합대학”, 「월간중앙」, 1989년 3월호.
 Dobson, Richard B., “소비에트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와 고등교육의 기회 불균등”, 최희선 편역, 「교육의 사회적 구조와 이데올로기」(서울: 교육과학사, 1984).
 「등북아정보」, 1989년 2월 1일자.